



성도의 벗

2월호

목차

권두언(선교부장)	3
지배민족은 존재하는가?	6
예언자의 말씀(대관장)	12
의사가 보는 오늘의 모습(송태성)	20
정결의 윤리(이영범)	22
정치문제 공개토론(김응목)	30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	33
한국 지방대회를 마치고	35
임무를 완수한 선교사	38
선교부장님의 활동	40
지부 소식(신촌, 성북지역)	42
멀리있는 성도들	45
예기물론 출생	49
침례자 명단	53

* * * *

표지 설명:

섭경의 샬트레이크 신전

卷 頭 言 Editor's Page



장로님들이여!

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宣 教 部 長 裴 一 文

우리는 선견자이며 예언자이신 데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께서 부르셨으므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도
록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에 의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겸
손한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가르치시는 성신의 계시를 구해야 합
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천명하는데 부
끄러워해서도 안되며 예수를 이 세상의 주님이시며 구세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수로서 성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그의 가르침을 본받기 때문에 예수의 사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또한 우리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좋아하며 세상 어느 곳이건 예수님께서 가셨던 행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셨으며 그는 영면하지 않으셨으며 그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을 버리지거나 잊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진리와 빛과 권능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언자를 두셨으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와 비참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행복의 계획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행복의 계획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합당한 회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얻을 수 있으며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의 해의 영광에 승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방법을 간구해서라도 죠셉스미스에 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첫 시험과 하나님의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났다는 사실, 물론경에 대한 것, 또한 예언자와 사도들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며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훌륭한 소식을 전하는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복음지식을 알도록 갈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갖도록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침례를 주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이러한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형제들의 보상은 선교사 생활동안이나 장래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형제님들은 그분의 평화의 사자입니다. 형제님들은 한국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매일 반복해서 간증을 갖도록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형제님의 사업이 용납되었다는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에게 용납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용납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배민족은 존재하는가?

by John A. Widtsoe

독일의 나치당원들은 독일 국민은 하나의 "지배민족" 으로 그 외의 모든 국가는 그에 굴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차대전 당시 마구 사용되던 Herrenvolk (지배민족)이라는 독일말은 노예를 소유하고 그들의 노고에 의하여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국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어리석고 무례한 주장은 수세대 전에 — 아마 호전적이었을 — 어떤 자만에 가득찬 사람의 두뇌에서 연유한 것으로 최초에는 독일인들에 의하여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인간의 허영심에 퍼 아필해 오는 것이었음으로 여러 철학자들은 대중의 호기심에 부채질했던 것이다. 생각컨대 이들중 가장 빈번히 인용이 되는 첩인(니체)은 건전한 정신상태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정신적으로 병인이었던 하틀러는 그의 검잡을 수 없는 방광증으로 인하여 기타 제국에 군림하려는 독일인의 우수성이라는 주의를 행사했으며 온 세상을 가공할 유혈전쟁으로 몰아넣은 비인간적인 이념을 남용했던 것이다. 근자에 있었던 이 추축국가들의 군사적인 패배는 당분간 —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 다른 모든 국가위에 군림하려는 독일인의 우수성이라는 지지할 수 없는 개념을 무기력하게 해 놓았다. "지배민족"이란 개념을 믿음은 오랜 인류역사상 무지의 발토임이 입증되었다. 애급 바빌로니아, 그리스, 유

롭의 여러 국가 및 기타 제 국가가 시대적으로 변천해 오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한 민족이 지닌 결정적인 우월성이란 개념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무지하고 정신적으로 빼돌려진 "지배민족"이든 신봉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들은 마치 열소가 뿔로 단단한 벽을 마구 받아넘기는 것처럼 불행한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이었다. 무지는 암흑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국가 심지어는 이른바, 비 문명국 혹은 야만인들에게도 한계 최고로 "개화된" 문명인들과 어울릴 수 있을만큼 발전할 심신 내지는 정신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능력(은사) — 환경과 전통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 을 발굴하고 키우므로써 어느 곳에 있는 그 백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보다 힘있는 곳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발전의 삼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 어느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장시간이 걸리겠지만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체로 타고나는 기질은 각 민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나라마다 일반 대중에 비길 수 없을 만큼 고도로 천부의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다. — 프라톤, 갈릴레오, 테니슨 이들은 범인들 이상으로 보고 행동한 사람들이다. 그들 즉,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사상과 노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위대한 인물들이란 일반대중의 생활을 형성해온 미술가, 작가, 과학자 그리고 사상가들이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뉴튼과도 같은 이들이었다. 이들의 존재가 진실로 "지배민족"이란 문제에 대한 최종의 해답이 된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이런 위인들을 배출해냈으니 말이다. 그들은 어느사회 혹은 어느 곳에서나 탄생한다. 현재와 같은 인간세계를 만든것은 어느 한 국가는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여러 나라의 공동산물인 것이다. 자연은 지역적 혹은 민족적인 제한성으로써 "지배민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배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너무 빈번히 육체적인 용맹성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체력만이 오직 연합한 자기 형제를 굴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군국주의가 범해온 과오였던 것이다. 그는 "지배민족"의 성원들이 먼저 공정하게 평형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출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수한 사람이 지닌 일면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가 있지 말아야 할 것은 발전도상에 있고 아직 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타고난 커다란 정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아메리카 인디안과 아시아의 고원지 유목민과 아프리카의 니그토들이 있다. 체력은 식생활과 직업이 두드러지게 단순한 생활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자칭 "지배민족"이라고 하는 유럽인에게는 체력의 탁월성은 없다.

이처럼 어느 한 국가가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이끌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지배민족" 주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주장해 왔으며 광복할만한 정신에 의한 정복은 일개국가나 이 삼개국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지적인 역사는 많은 작가, 미술가, 조각가 음악가 그리고 연예인들이 각 분야에서 보여준 업적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인 재질과 정서적인 재질은 가난과 부, 의와 불의를 가리지 않고 또 중국이라는 곳에서 미국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의 경우 — 피사의 사탑에서 버클리에 있는 하전입자 가속장치에 이르기까지 — 최소한 14개국이 협대과학을 구축하는 일에 관여해 왔고 거의 모든 국가가 그 투기장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위대한 발명가들의 수라는 점에서 볼 때 영국과 불란서와 독일은 거의 비등하다. 그러나 약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도 열쇠를 쥐고 있는 발명가들이 있으며 이들이 없었던들, 위대한 발명가들이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과학이 준 놀라운 선물인 라디오는 최소한 15개국 사람들의 노고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라디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발명 및 발견중 몇가지는 별로 평가되지도 않는 작은 나라에서 제공한 것이다. 만약 어느 한 나라에서 라디오 발명에 개가를 올려 그 복잡다단한 부속이 꾸며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못되었을 것이다. 라디오 발명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의 수를 볼때 독일은 불행하게도 셋째 밖에 안된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취하는 일도 일국가에 특정 지워지지 않

았다. 어느 나라에서나 많은 사람들은 영의 은사(재능)를 갈구해 왔으며 야만인들까지도 생의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왔다. 언제 왜 어디서 라는 질문은 위대하거나 미소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속에 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자기이웃을 위하여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으며 심령이 가난한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해 왔다. 애굽, 인도, 중국, 페르시아인들의 종교가 이 표본이 된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영의에찬 심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서 이랄된 분명한 사실을 교정하려는 무수한 종파가 생겼다.

"지배민족"주의 조장은 이차대전당시에서 처럼 자신의 이익을 조장하려는 특징이 없는 사람들이 외치는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인간이 성취하는 일에 어느 일개 국가에 의한 지배력의 독점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법적인 국가 주의를 허용하여 방종을 불러들임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정한 "지배민족" 혹은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구성원은 모두 진리를 구하고 찾은다음 그것을 수락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달게 받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기 지배 능력을 획득한 이들이다.

그 집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그들을 다스리는 율법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바라는바 건강과 심신 및 영적인 힘을 얻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집단의 목표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고 또 그들이 자신의 상태에까지 향상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이것이 그릇된 "지배민족"주의와 세상을 구원하는 참 지도력의 차이점이다. 전자는 이기적이며 후자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전자가 일국가에 국한되는 반면 후자는 전 세계를 일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한다. 전자는 악마의 것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차대전 당시의 "지배민족"주의는 흉한 악몽이 있으며 사탄이며 악마가 주인이 되는 악인의 권세로 가장되었던 것이다.

존 에이. 워드소의 "현대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복음의 해석" 214—217페이지 (살트레이크 시: 북크래프트)

형제 자매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성도의 빛”



— 預言者의 말씀 —

인간의 자유의지

— 영원한 진보의 원칙 —

大管長 데이비드 오·멕케이

(지난 10월 총회의 제1총회에서 멕케이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대관장님의 허락을 받아 이번달 대관장 말씀으로 실린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을 대하니 기쁩니다. 나

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여러분의 심중한 간청과 신앙과 기도에 내가 얼마나 감사히 여기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 한분 한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영예로운 일이며 계속적인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와 영감을 확신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로서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과 선하심을 깨달으며, 기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영으로 우리의 영육이 예언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시험과 조화를 이룬다고 확언하는 바입니다.

"들을 지어다 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릴 지어다 오, 땅이여 그리고 기뻐할 지어다.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여, 주는 하나님이지요, 그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하니라

"위대함은 그의 지혜요 기이함은 그의 길이니 그의 행하심이 미치는 끝은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나 주는 자비롭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로우니 의와 진리 안에서 끝까지 나를 섬기는 자, 공경함을 기쁘게 여기노라" (교리와 성약 76장 1-2, 5절)

나는 오늘 아침에 내 마음속에 품고있는 말씀을 전하여 드리려 하는데 심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나는 여러분의 도움과 보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주님의 영감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제일총회와 이번 대회의 모든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나는 흥미를 가진 청중들이 입구에 운집해 있는 것을 볼 때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출석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기쁨을 느껴야 할 광경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전보다 더 강한 커다란 두 세력이 있어서 각 세력은 더욱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더욱 계획에 적극적이며 반면에 전보다 더욱 통계를 감추고 있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내 생각에서 제거해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커다란 두 세력은 증오와 사랑입니다. 증오는 우리가 전세에 있었던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천국전쟁"에 관하여 계시록에는 중요한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걸보기엔 반대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장 복스러운 사람만 살고 있고 전쟁이나 경쟁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그 구절은 영계에 있어서의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내게 반란을 이트켜 나 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인간의 의지를 멸하려 하였기 때문에 나는 내 권능을 저에게 주어야 했나니 내 독생자의 힘으로 저가 쫓겨나게 했노라.

"그리하여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곧 악이요,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이며 인간을 속이고 눈멀게하며 자기의 의지대로 인간

을 인도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까지 했느니라"
(모세서 4장 3-4절)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두가지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사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신성의 일부입니다. 그 둘째번으로 주목할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게 주소서" 한것을 보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에게 준 그 거룩한 은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같이 결코 창조되지도 않았고 창조될수도 없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야기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증오의 정신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빼앗겨 그 상태의 힘은 대치되고 있습니다. 악이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기로 결심했던것 처럼 보인 때는 인류의 역사상 일찌기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근본원칙은 자유의지이며 성전을 참조해 보면 이 원칙은 1) 인간의 구원에 기본적인 것이며 2) 인간의 행동과 조직과 국가가 심판받을 저울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읽습니다. "너의 마음을 격려하고, 네게 스스로 행할 자유를 갖고 있음을 기억할찌니라.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니라"

(니파이 2서 10장 23절)

"땅이 충만하며 거기엔 충분하고 여유가 있나니, 그러하다. 내가 모든것은 예비하여 저들 의지대로 누리도록 인간의 자녀에게 주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104장 17절)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것은 권리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 땅의 법을 세웠나니 그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일으키고 피흘림으로 땅을 구속케한 현명한 자의 손에 의한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01장 79-80절)

"나의 독립성은 내게 있어서 신성한 것입니다"하고 부리감 영은 말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신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처럼 세워지고 조직된 사람으로서 선한 충고와 훌륭한 모범에 의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 행사함을 박탈당할 존재는 지상에 없습니다." (부리감 영의 설교집 1943년 판, 62페이지)

은갓 투쟁과 분쟁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역사는 예속과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노력을 대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원한 진보의 원칙이며 따라서 어떠한 정부이든 자유의 행사를 억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태초에 있어서 사탄의 계획은 하나의 강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의지를 파괴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허용되고 인간은 범법자가 됩니다. 범죄자를 감소시키고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입니다.

생활 그 자체를 부여하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은사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소유물 보다는 더욱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속에 타고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정상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사람이 적빈의 상태에서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부터 상속받은 부유함에 매어있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가장 값진 생활의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상속받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자유의지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영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원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께서는 우선 인간을 자유롭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어떠한 생물에도 수여되지 않은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힘을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창조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택할찌니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라 ..." (모세서 3장 17절) 이 거룩한 선택의 힘 없이 인간은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책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도함에 대하여 보상받고 악에 대하여 벌받게 된다면 보통의 심판은 그가 독립 행위의 힘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선과악

에 대한 지식은 지상에서의 인간의 진보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항상 권리를 행하도록 강요한다면 죄를 짓도록 무력한 상태에서 유혹을 받았다면 첫째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도 못하며 둘째는 벌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자유의지와 상응하여 운용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율법과 자연의 법칙에 일치하는 행동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성스러운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나태한 언어나 생각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지의 자유와 그것이 관계된 책임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국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거룩한 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셨고 현대 계시에 나타난 "그의 사업과 영광"(모세서 1장 39절)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육의 자유에 대한 은사를 통해서만이 그러한 진보는 가능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국제간의 적대와 정치적으로 그릇된 이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정되었다면 정치적인 방편으로 흔히 추진된 헌명치 못한 입법은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그럴듯하게 침식할 것이며 올바른 자유를 탈취하고 단체 생활에 있어서 부서진 바퀴의 톱니바퀴에 자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기쁨을 주는 생각은 못되지만 세계의 반수 이상이 중국 지도자들이 나타낸 바와 같이 또 러시아에 있는 공산주의 집단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고 쿠바에서 권리를 나타낸 바와 같이 이미 증오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증오의 정신에 뒤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부정입니다. 사람은 그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이며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케 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계심을 부정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부정하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 * *

더그라스 맥아더 장군이 그위 책상위 워싱턴과 링컨의 사진 사이에 끼워둔 사무엘 얼멘의 글:

젊음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미빛 뺨, 붉은 입술,

매끈한 종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 상상력의 특성, 감정의 활기가 문제다.

그것은 생명에서 솟아나는 깊은 샘의 신선함이다.

젊음은 소심에 대한 용기, 안일을 탐하는 마음에 대한 도험의 우월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20세 청년보다 60세의 노인에게 있기도 한다.

우리는 단순한 연륜만으로 늙지 않으며,

이상을 잃으므로써 늙는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나 열정을 상실한다는 것은 연혼을 주름지게 한다.

의사가 보는 오늘의 모습

송 태 섭

"합력을 마시자, 피토를 없애자."

"위하수증, 위 무력증에!"

"단 1회 주사도 청춘을 다시 한번"

"보다 젊고 심심한 매력"

"뚱뚱한 몸이 날씬하게"

"머리가 좋아지는 약"

"당신의 살갓이 희고 고와진다"

"술 마시기 전후에"

불노초를 구하려 다녔다던 진시 황이나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옛날 왕들의 죽기 싫어하던 망령들이 난무하는 듯한 오늘날의 세상

이런 망령들과 친숙해지고 있는 층이 지식수준도 중류이상을 자칭하는 이 나라의 신사 숙녀 여러분이다. 약이 모든병을 다 고쳐주고 약이 모든 인간을 다 행복하게 해 주는 것 같지만 임상 의학 분야에서도 약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치료면에서도 불과 몇분의 일을 차지함에 불과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해도 약이 지닌 해독을 고려해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을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에 대한 개념은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병에 걸려 보고서야 건강의 귀중함을 생각케 된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건강을 잃은 상태지만 또한 건강을 구하고

갈망하는 상태도 된다. 질병에 걸려 허덕일 때는 건강이란 두 글자가 없기 때문에 건강의 진미를 잘 모르겠지만 건강할때 건강의 진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건강을 활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남이 가진 지식이나 사람이나 신앙의 태도를 선망만 할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훌륭한 인생관을 발견할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의사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으며 위와 간장이 나빠진다고 그다지도 말했는데 술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재미가 없노라고 하는 주당님?들에게는 소위 위와 간장을 보호합네 하고 시중에 나오는 약들이 천사의 복음으로 들릴 것이지만 얼어맞은 따귀를 나중에 쓰다듬어 주었다고 해서 아픔이 가신다는 말인가? 입시 준비에 밥맛도 있고 밤잠도 못자고 서두르는 아동들의 머리가 몇개의 알약으로 좋아지며 거둬둔 과토가 ㅇㅇ드림크로 풀리겠는가? 타고난 검은 살결 뚱뚱한 몸집이 과연 비타민이나 ㅇㅇ홀몬제토 희고 날씬해 질까?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치료하는 데는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위생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과 딸로서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겠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충실치 못할 때는 그 원인을 알고 제거하는데 있다 하겠다. 금속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불이다. 불이나 흙이 할 수는 없다.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역경이지 평안한 환경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개척자요, 선교사요, 교회의

(32페이지에 계속)



정 결 의 윤 리

나성지역 한인지부장 이영범

미주에 처음 도착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인들이 긴 치마를 입어 거의 치마자락이 뽕죽한 고무신의 토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에 도착해 보니 대부분의 여인들은 긴 치마가 아니고 짧은 스카트를 입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날 미주의 나성에 도착했을 때는 돌튼 날씨가 온화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서도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스카트가 아니고 "버뮤다 뺨스"라고 아주 길이가 짧은 정구선수복 같은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에 나는 속으로 문명이 발전되면 그에 정비례해서 여인들의 노출증은 증가해가며 성적 도덕율은 박약해 가는 것이 아닌가고 혼자서 슬며시 웃어본 일이 있습니다.

예 언 자 의 필 요 성

문명이 발전될수록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복잡해지며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는 감소해가며 도시가 팽창할수록 외롭고 쓸쓸한 사람의 수요는 증가해 갑니다. 이것이 문명 세계의 병폐 일런지도 모릅니다.

비단 현대인의 번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그리 평탄한 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을 벌어서 밥을 먹는다는 것만도 힘든 일이거니와 그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믿고 의지하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으며 몇년의 공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옛 사람은 가고 새 사람은 오며 옛 사조는 흘러가버리고 새 풍조는 급습해 옵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은 군복을 입게되고 군복을 벗은 후에도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부모와 친지들을 떠나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의 수뢰바퀴속에서 반딧불 같이 희미한 우리의 신념은 잊으러지기 쉽고 우리는 갈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참된 길을 찾고자 번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혹은 부모와 처자를 멀리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혼자사는 남자나 여인에게 과연 정결의 가치가 어디있는 것인가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현대인에게 가장 뜻깊은 일은 오늘날도 옛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언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궁극의 문제는 오직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로서 해결 지을 수 있으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해 갈 때에 내 마음속에는 확평과 안식이 깃들 수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

크게 분별하여 이 사회는 두가지의 규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규범이요. 다른 하나는 종교적 규범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공도 실패를 갖어오게 하며 후회와 불만과 신음의 경지에 인도하는 낮은 평원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실패도 성공을 갖어오게하고 진실한 노력은 영생과 불멸의 보상을 갖어오게 하는 보다 높은 평원의 세계입니다.

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에게 보내는 서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일을 하는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라디아서 5장 19-24절)

세상의 표준에 의하면 담배를 피워도 무관하지만 교회의 표준에 의하면 이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축배를 올리고 술잔치를 하는 것은 세상의 표준에는 용납되는 일이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에서 멀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에서는 약혼자와 동침하거나 결혼전 혹은 결혼 후 이 여자, 저 남자와의 정결치 못한 성행위를 용허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런 것에서 멀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정결에 관하여 오늘의 예언자 데비도 오. 맥케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또 세상의 스승들이 어떻게 가르치건 구애 받음없이 오직 이 영원한 진리를 가슴속에 지켜야 한다. 정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이요, 가장 고귀한 성취인 것입니다. 정결은 남자에게는 정력을 돌꾸워주며 여인에게는 덕에 덕을 더하여주며 가정에는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국가에는 영속할수 있는 국력을 길러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공선과 같이 순수하고 생명과 같이 거룩하며 모든 남성이 사랑하는 미덕이며 모든 남자의 영혼을 얻을수 있는 여인의 덕망 이것이 곧 정결인 것입니다."

정결의 보상

정결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 갈 때에 여러가지 축복이 따릅니다. 나는 이것을 세가지로 나누워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금지를 살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금지를 잃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더욱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혼자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사람들 특히 가까운 친구들의 나에게 대한 인식은 나 자신의 자존

심과 심적 안정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도덕적인 면에서는 보수적이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부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직도 유형 무형의 도덕적 표준을 중심해서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양심을 따르는 도덕적인 행동속에서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순한 성적 흥분속에서 사람이 도취되어 있을 때는 도덕적 종교적 양심은 잠시 정체되고 얼마가 지난후 사람에게 따라 한달, 일년 혹은 십년후에 정신적 평정기에 이를 때면 그 양심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지를 잃게 됩니다. — 현명한 사람은 대궐집 대들보를 뜯어서 아궁이에 불을 집혀 해장국을 끓여 허기증을 면케하는 사람은 없을 것 — 이라고 말한 미국의 결혼학의 대가 헨리 보우만 박사의 말씀도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에 내가 오늘 눈을 감어도 내 양심에 호소해서 부끄러움 없이 깨끗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용기 있고 과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으니 햇빛이 두려웁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 테니슨은 "내 마음이 정결하시 내 힘은 열사람의 힘이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결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번째의 축복은 극기의 정신을 배양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치고 극기의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나는 여러번 생

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지식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고 성격이 고결한 사람들 틈에서 행복하려면 나 자신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여야 합니다. 극기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곳이 하늘나라라면 나 자신이 극기의 훈련이 되어있자' 못할 때에 비록 하늘나라에서도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식욕, 성욕, 정욕, 야욕, 감정 등은 다 좋은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도를 지나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독을 끼치게 되며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 때에 인간은 천해 보이고 저속해 보이고 값이 싸 보입니다.

만인의 존경을 받는 고 감티옹은 그의 생활을 탐모하는 어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만인에게 가능합니다. 나의 체험은 골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여러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초월해서 살려고 노력해 본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간디 선생의 위대한 점을 찾게 되고 인간의 고결성을 그 속에서 발견해 봅니다.

정결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워지는 세번째, 즉복은 우리를 신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가정 생활에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 생활은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신전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신전의 결혼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정결의 율법을 지킨 형제나 자매에게만 주워지는 성도의 특전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신전에서 의 결혼을 동경하며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정열과 상상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서로 열열히 사랑하는 남녀의 가슴속에는 인간의 수단으로서 측정할 수 없는 그 어떤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도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과 순수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수 많은 노래가 지워졌고 수 많은 글이 쓰여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결음 더 나가서 이 사랑의 고귀한 남녀의 관계가 복음속에서 꽃피어 순결과 진리와 존경과 신앙을 토대로하여 신전 결혼으로서 열매가 맺어질 때에 이 사랑의 부부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비록 변화 많은 속세에서 살지만 변화 없는 영원한 사랑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 때에 남편은 보다 친절한 남편이 되고 아내는 보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며 자라난 아들 딸들은 효성있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며 이루어진 가정은 지상의 적은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곧 개인의 행복의 원천이요, 교회의 반석이요, 사회의 기반이요. 시간과 영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선지자들은 성직 음행을 강력히 꾸짖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까지 얽히 말씀하시고 너희의 마음
과 생각을 항상 깨끗이 하고 너희 아내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깊은 뜻도 여기에 있는 것이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966년 2월

남가주대학 대학원 연구실
한국의 성도를 그리면서

* * * *

사랑하는 주여, 온후한 주여, 은혜로운 주여,
나는 기도 하나이다.

오늘 다정스럽게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도록 해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피로를 뺏아내시고

모든 근심을 쫓아버려 주옵소서

날개를 따라서 슬퍼하는 자에게

번뇌를 죄다 벗어나게 하소서

웃는 입술이 넘쳐흐르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난한 자와 더불어 기도 하나이다

지금 나의 재산인 이 한없는 재보의알맹이를 나누어 주소서.

“정치문제 공개토론”

평화적 해결의 유일한 방편이신 그리스도를 존경하자

편집자 주: "정치문제 공개토론"은 데일리 유니버시티의 정규 논문란이다. 금주의 주제는 "세계 평화 문제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이다. 투고자는 린다 킨스포드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중인 한국인 학생 김응목 씨다.

나의 진정한 관심사는 세계적인 영원한 평화이지 적대감정이 사라지지 아니한 부분적인 일시적 평화가 아니다.

우리들이나 지난날의 우리 조상들이 참된 평화를 지상에서 향유한 적이 있었는가 많은 위대한 인물이나 기관이나 국가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또다시 오해와 논쟁을 이트키고 때로는 혹심한 전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우리들은 혼란하고 불확한 세상에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왜 미국은 평화군단이나 풀부라이프 프로그램 외국 원조 프로그램과 같은 계획으로 평화를 수집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가?

이 세상은 악마로 말미암아 마음이 감해지고 이해심이 없으며 미움과 적대감정을 가진 자들로 가득차 있다. 과거에 "서구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마음

이 강박해진 사람들은 복수의 꿈신자가 되어 자기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 대다수의 국민은 소수에 의해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다만 이집의 원수를 미워하는 일에 휩쓸려가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결책이 강구되어 왔으나 상대국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태도가 전적으로 근절된 적이 없었다. 예를들면 미국이 남한에 군사원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더욱 적대시하게 되며 따라서 북한은 군사력을 더욱 증강시킨다.

이러한 것(타국에의 군사원조)은 세계 평화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만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전쟁을 유발시킴으로써(경제적) 공황을 메꾸려 할 것이다. 지도자들의 정책은 전체로서의 세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신뢰감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왜 벌꿀은 깨끗하거나 먼지가 묻어 있거나 간에 이슬을 빨아 꿀을 만드는데 하면 왜 독사는 깨끗한 이슬을 빨아서도 독을 품게 되는가?

모든 인류는 인간의 벌꿀—이해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벌이 되어야겠다. 인류가 준비하여 기꺼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는 의욕을 가지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수립될 수 없는 것이다.

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류는 자기는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이며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해서 따뜻한 마음씨와 사랑과 이해심이 모든 사람에게 깃들어서 서로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세계평화의 항구적 해결책은 모든 인류가 절대자앞에 겸손해져서 그의 계획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일대 운동이다.

성도의 벗 편집자 주.

이상의 기사는 미국 "부리감 영" 대학신문 "데일리 유니버스"지에 동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연구중인 동부지부 김응목형제가 투고한 지난 12월 17일자 기사입니다.

* * * *

(21페이지에서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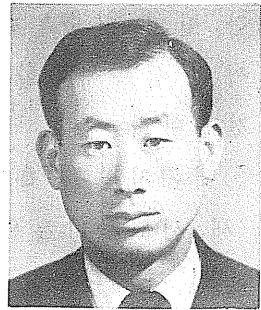
일꾼들이기에 건감한 정신과 육체를 간직하면서 어떤 역경이나 유혹도 이겨나가야 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자비스럽고 은밀히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집에서 우리 말일성도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도와서 이 세상을 보람있게 살아야 했다. 인간이 만든 약이란 것은 결코 만능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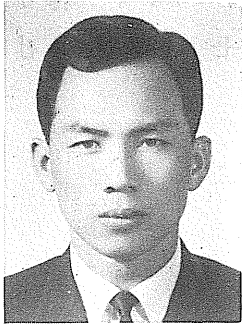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

장병훈, 천낙서, 김성문 세형제는 지난 1월 30일 한국선교부의 전임 복음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966년 6월까지는 적어도 한 지부에 한 사람씩의 한국인 선교사를 배치하겠다는 팔머 선교부장님의 뜻에 따라 취해진 것이므로 이미 부름을 받고 봉사하고 있는 청운지부 출신 황준섭 장로님(현 동부지부 지부장)을 합해서 4사람의 한국인 선교사가 부름을 받은 것으로 팔머 선교부장님의 계획은 거의 달성단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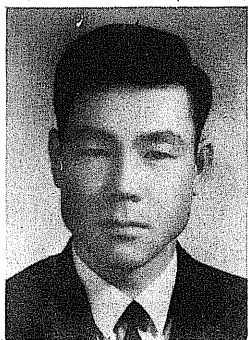
청운지부에서 봉사하게 될 장병훈 장로님은 1938년 5월 8일 부산에서 출생하여 1958년 10월 12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동생 장경자 자매님의 인도를 받은 장형제님의 모든 가족은 우리교회의 회원입니다. 장형제님은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부산지부 주일학교 감독 및 남



자 청년 삼향회 회장, 지부장단 보좌로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부산지부에서 봉사하게 된 천낙서 장로는 이번 선교사로 부름받기까지 약 5개월간 삼천지부 지부장으로 수고하셨으며 1958년 5월 24일 침례 받았습니다.



선교사업이 처음이 아닌 김성문 장로는 부산 동구 지부에서 사간 선교사로서 봉사하였으며 노무 선교사로서 동부지부에 배당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 형제는 비교적 최근인 1963년 11월 24일 침례받았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팔머 선교부장님과 이호남 지방부장님의 여러가지 선교사로서의 심득해야 할 문제를 토의하며 브리핑을 받는 훈련기간을 가졌습니다.

대관장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팔머 선교부장님이 1월 30일 새 선교사님들을 안수 성임함으로서 그들의 하나님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세 형제가 부름받은 것이 앞으로 2년동안 그들 자신과 한국 선교부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들 선교사님들이 용감히 모든 문제에 도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지방대회를 마치고

새해를 맞아 제일 처음으로 열린 66년도 제1차 한국 지방대회는 대회 주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죽은자들, 곧 우리의 선조를 구원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기독교에서도 해답해 줄 수 없는 죽은자의 구원을 천명히 세상에 알린 모임이었고, 실제로 선조를 구하는 계보 사업이 이 한국 땅에서도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회이기도 했다. 한국 선교부장 제1보좌인 카우리 형제님을 회장으로 조직된 한국 선교부 계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많은 실제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대회장에 전시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쉴트레이크 교외에 있는 리틀커틀우드 협곡에 마련된 교회의 기록 지하보관소의 면모를 사진으로 소개함으로써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며 영원성을 띤 일인가를 입증해 주었다.

"보라, 여호와와 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 이것은 신권회 대회 주제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 이것은 지일총회의 주제였으며,

"만일 죽은자들이 도무지 다시 알지 못하면 죽은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 이것은 제이총회의 주제였다.

말일에 회복된 복음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지고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차별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영남지역을 포함한 참석 연 인원 약 1,400명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공평하심에 감탄하는 감사의 넘이 끊게 했고 하루빨리 선조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해 주었음이 틀림없다. 특히 심은대로 걸은다는, 우리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짙은 동화를 한국말로 들려주신 팔마 선교부장님의 말씀은 "아니 안되지, 내가 먹어야지. 빨간 작은 암탉이 말했읍니다." 하는 유행어가 회원간에서 나올만큼 강한 감명을 주었다.

끝으로 차기 대회를 위하여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준비 문제이다. 이것은 약속시간의 엄수 뿐만 아니라 준비한 말씀 내용의 전달 방법이 문제이다. 원고를 준비한 것까지는 좋지만 결코 낭독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점 발표장이나 시감모듬이로 대회장을 오인한 듯한 인상이나, 약장사 풍설이라는 청중의 빈축을 사게 되어서도 안되겠다. 회원이나 구도자의 마음에 선의의 충동이나 감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듣는이의 귀를 흔들어 주거나 언성을 높이는 성대의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적셔주는 영과 영의 교류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러두고 싶다. 또한 보는이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회원들의 태도중에는 물론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시간에 지각한다거나 도중에 불참이 잦아서 경건성을 그르친 무지한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교회에서 갖는 모임은 어떠한 것이든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갖는 것임을 생각할 때 과연 조심성 없이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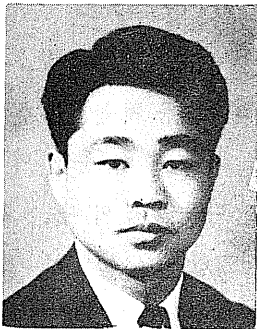
이번 대회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수고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 소감을 적어두는 바이다.

(달)

* * *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17절)



“ 임 무 를 완 수 한

선 교 사 ”

젊음과 하나님에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씩씩함이 한국 선교부에 다 알려지고 있는 한인상 장토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지인 대구지부에 도착한 것은 해병대의 여독을 미쳐 풀기도 전인 1964년 2월 10일 이였습니다. 그 전날인 9일 환송회를 마치고 현 지방부장이신 이호남 형제님과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앞으로 2년동안 모든 생활을 하나님 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쳐 아직 복음을 들지 못한 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청춘의 금과 같은 시간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대구지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지니고 있는 복음지식과 근면으로 곧 대구지부 회원들의 환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가에 있어서의 한 일화로서 대구지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50미터 거리를 매일 아침 비토 쓸었으며 좌우 100미터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안녕하십니까의 인사를 하는 성실과 근면을 몸소 실행했던 것입니다. 대구지부에 있는동안 도길회 현 지부장님의 4개월의 휴가동안 지부장으로서는 대구지부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아론신권 소유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서울에 전속되어 지방부장단 제1보좌에 임직되어 새

로 임명된 이호남 지방부장님을 효과적으로 보필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몰몬경 번역관계로 부산 동구지부에 내려가서 있을 때에는 부산 동구지부의 많은 회원들과 참 형제와 벗으로서 지내 정말 그리스도의 산 표본으로서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1965년 8월 선교본부에 전속되어 선교본부 요원으로 팔머 선교부장님을 헌신적으로 보필하여 신임 선교부장님의 불편이 전혀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66년 2월 9일부 선교사의 부름에서 해임되기 며칠전에 그에게는 또한 무거운 짐이 주어졌으니 신권 소유자로서는 정말 그에게 주어진 권능과 영감을 통해서 최전선에서 모든 어려움에 도전하는 삼청지부 지부장 직에 임직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부장님께서 한인삼 장토를 삼청지부 지부장으로 임직하는데에는 선교부장님의 영감에 의해 임직하신 것으로서 2년동안의 선교사업의 체험과 더불어 삼청지부 발전은 분명한 사실로 기대됩니다.

한인삼 장토가 선교사 재임 기간동안 받은 큰 축복의 하나로는 장세천, 홍명식, 정대관 형제등 여러 형제님들이 번역하였던 몰몬경을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는 교정하여 출판단계에 있는 것으로 몰몬경 출판사업은 한국 성도들과 더불어 한인삼 장토님의 남은 과업입니다. 한국 성도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신 한 장토님께 감사드리며 선교사업을 훌륭히 끝마치도록 격려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선교부장님의 활동

돈암예식장에서의 강연

각 가정이나 각 기관을 방문하여 보다 성년층의 구도자들을 구하는데 목표를 둔 새로운 선교정책에 따라 세워진 심복지역에서는 지난 2월 11일 돈암예식장에서 많은 구도자들을 초청하여 선교부장님의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와 몰몬교"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돈암동일대의 명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브리감 양 대학 역사 및 종교학 교수인 팔머 박사는 그 자신이 오랜동안 연구한 결과 부전공으로 연구하셨던 불교를 위시하여 유교등 모든 종교가 창설당시의 교리나 의식이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몰몬교는 살아계신 예언자가 계시는 끊임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집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몰몬교만이 변질되지 않은 종교임을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청중 가운데

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도 몇분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져 우리교회의 교리를 연구해 보겠다고 했으며 특히 물문경을 모두 읽기를 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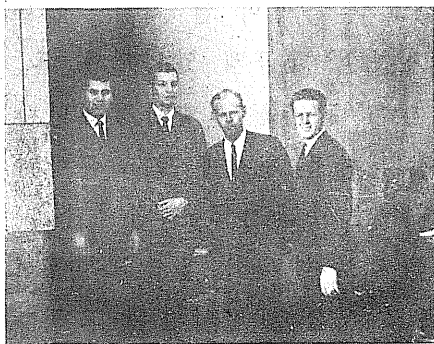
험프리 미 부통령 팔마부장님을 초대하다.

팔머 선교부장은 미국에 계셨을 때부터 미국의 정계나 학계에 널리 알려졌던 분이로서 지난번 내한하신 미합중국 험프리 부통령은 만찬회에 팔머 선교부장님을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선교부장님이 초대를 받아 정동의 미 대사관 관저에 도착하셨을 때 그 많은 명사들 가운데 유독 팔머박사님만은 험프리부통령께서 친히 현관까지 마중나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팔머부장님께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일차 선교본부에 방문할 뜻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선교부장님께서서는 전 이화여자 대학교 총장이며 현 재단 이사장이신 김활란 박사님의 만찬에 초대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교육기관의 개선과 증설문제를 듣고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아삼과 같이 선교부장님께서서는 한국의 많은 명사들과 교관하며 복음전파의 기획을 찾아내려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십니다. 일찌기 김호직 박사님의 생존시에 한국에서 우리 물문교회를 소개할 때 널리 알려져 있지않는 물문교 대신 김박사님의 교회가 더 잘 알려진것 처럼 물문교보다도 팔머 박사의 교회가 한국의 명사들 간에 더 알려지게 될 단계로서 우리들 성도들은 선교부장님께 지지 않도록 복음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신 촌 지역. 성 북 지역.

"한국에 하나님의 참 복음이 전도된 이래 그동안 서울의 4개지부와 부산의 2개지부 대구의 1개지부가 세워졌으며 2,000여명의 심령들이 개종하였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는 발전인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에 2개지역에서 새로 하나님의 참 복음 가운데 모임을 갖게되었으니 그것은 돈암동에 있는 성북지역과 서대문 참천동에 있는 신촌지역 모임인 것입니다.

* 성북지역*



첫모임은 지난 첫 주일에 김기춘형제님의 집에서 가졌습니다. 20명이 함께 예배보기 위해서 추운날씨임에도 모든문은 철거되었습니다. 여기에 한의삼형제가 보고한것을 간추려 보면: 우리들의 모임은 다른지부와 조금달리 오전10:30에 9사람이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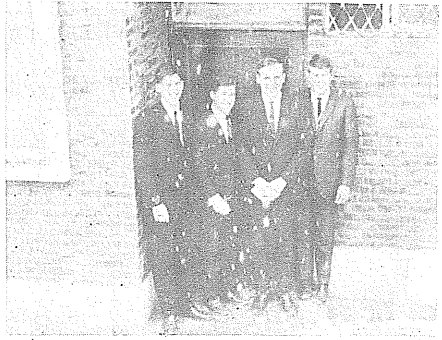
석한 가운데 기도회가 시작되었으며 리랜 와커장로의 사 회토11시에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습찬송과 이분 반 이야기 를 한 다음에 성찬식을 집행하고 기혼자 반과 미혼자반의 두반

으로 분반하여 공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형제의 설명에 의하면 성찬을 준비할 때에 성찬기가 없어서 매우 곤란을 겪었다 합니다. 한 형제는 성찬 컵을 씻기 위해서 두터운 마분지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고역을 겪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이 새지역을 훌륭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결의가 새로워졌다 합니다.

* 신촌지역 *

지난 11월 19일 팔머선교 부장실에서는 신촌지역에 다음과 같은 목표로 새로운 예배도임을 갖는다는 아주 건설적인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나 영어회화 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인 접촉은 될 수 있는대로 회피하고 그 가정에 방문하여 그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째는 이 지역의 예배당 건물과 유지비는 교회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일환으로서 신촌지역모임 발족 기념문이 든 타올을 만들어 이 기금의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듯 합니다.

첫 예배모임은 12월 12일 아침 홍 영순 형제의 집에서 가졌

입니다. 이 날은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16사람의 회원과 구도자 및 4사람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모든것에 익숙치 않드래도 마치 한 가족들과 같았고 이 모임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다. 토이 벤가터장토님이 모임을 사회하시고 파울 드렛지 장토님의 음악인도로 개회 찬송을 부른 다음에 홍 영순 형제님의 개회기도에 이어 감 수길 자매님과 김 덕응 형제님의 2분반 말씀에 이어 손확선 형제가 공과반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회 소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과 반은 한반뿐) 폐회기도에는 이 해동 형제님이 해주셨습니다.

* * * *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 10장 32,33절)

멀리있는 성도들

주: 성도의 벗 편집자 구중식 형제에게 미국의 나성에있는 흥병식 형제가 보내온 글췌을 일부분만 전제합니다.

"성도의 벗" 감사히 받았습니다. 구형 및 여러 회원들 특히 한국이 몹시 그립습니다. 벌써 4년이 되는군요. 그간 자주 소식 올리지 못한 것 사과합니다. 서투른 뱀명을 하자면 그저 그렇게 바빴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성범, 영선의 한국의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국 말은 아직도 잘합니다. 선교사로 한국에 가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아직도 잘 합니다. 선교사로 한국에 가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매일밤 가족기도에서 빼 놓지 않습니다. 우리 꼬마 딸 진희는 지난달에 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70인 정윌회 회장이일 윌으로 스테이크 선교사를 곁해서 분주히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워드의 Executive Committee 의 회원으로 역시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언제 기획 있으면 Ward 단위의 Welfare Committee, Missionary Committee, Home Teaching Com., Genealogy Com. 의 자세한 운영 골자를 적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팔면 선교부장님이 가셔서 많은 활기를 띠는것 같군요. 일 잘 하실것입니다. "성도의 벗"은 아주 잘 편집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벗 1년분 3달라를 동봉합니다. 부족하면 연락주십시오.

나는 지금 두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Fairchild Winston Research Corporation 에서 full time 으로 일하고 Photo Electronics 에서는 part time 으로 일주일에 23시간 일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engineer 들과 손색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0년에 미국의 Apollo 계획으로 항공사가 달에 갈적에는 내가 현재 design 하고 있는 camera 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팔머 선교부장님, 이 호남, 지영달, 한인상, 홍순모, 서원, 정대관 등 모든 형제님들께 일일이 편지 못하나 항상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하여 주십시오.

다음 성도의 벗을 기다립니다.

나성에서 병식 올림.

* * * *

주: 율남 전선에 가 있는 한 무용 형제로부터 청운지부 정대관 형제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형님

항상 마음 약한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서 진즉 형님께 편지드리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 역시 하나님 보다는 바쁘게 철조망을 친다거나 호를 축성하는 일이 바보같은 저에게는 하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형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전번 친서 잘 봉견했습니다. 지금쯤은 그 아담한 교회가 하얀 눈으로 덮혀 더욱 아담해 보이고 좀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

우리 만큼 아늑해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내에서 형제 자매님들도(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제가 착실하지 못했지만) 다 두고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3주일 째 소대 씨. 피.(저의마사)에서 몇몇이 봉역 야꿈이 제단 쌓던 일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이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은 없으나 저희끼리 읽고 찬송하는 것이 어떤지 한구석이 빈것 같지만 그런대로 구김살 없는 소꿉장난 같은 다락방이어서 좋습니다.

아마 형님 아니 물론형제 자매님께서 저의 소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리라 다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츰 - 저의 소대원은 역시 철조망이나 밤카보다 하나님편이 더감하다는 것을 믿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계속해서 저와 저의 소대원이 하나님과 각자의 가족 앞에 형제자매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참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제 소대원 3명에게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시면 저의 뜻 살피셔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자애에 찬 격려와 사랑이 저의 소대원들에게 전해지도록 편지와 기도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하시와 항상 고국을 갈구하고 쓸쓸함 그들에게 힘을 주십사 하고요.

형님뿐만 아니라 이토서 모든 물론 형제 자매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난필을 여기서 놓겠습니다.

형님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됩니다.

월남 전선에서 무용 배

- 추신: 1. 될 수 있으시면 다 보신 서적이나 성경, 찬송가들 보내 주십시오.
2. 가능하시면 저의 이 말이 다 전해지도록 어디불여 다 전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주소: 군우 151-501 96,491.
 명호 제 521부대 " " 중위 한 무용 앞

* * * *

월남 전선에 위문품을 보냅니다

"월남 전선에 책을 보냅니다"

금번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월남전선에 가계시는 유춘재
강영철, 한무용등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책들을 보내
려고 하오니 여러 성도들은 성경, 찬송가, 잡지등을 편집실로
보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약 많고 적음을 상관
하지 않습니다.

“ 애 기 몰 론 출 생 ”

애기 몰론 탄생. "삼호부조회 회원야!"

병오년에 들어 벌써 애기 몰론이 돌이나 늘어 몰론 식구들은 긴장한 가운데 이 새 식구들을 지켜보며 행복을 빌어 주고 있다. "날 때부터 난 몰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한국에도 있다는 이 꿈같은 사실.

병오년이 밝아 정월 초사흘, 전 장로집원회 회장이시고 지금은 지방부장단에서 수고하시는 박재암 형제대에 애기 몰론이 고고의 성을 올렸다. 하루밤을 산실에서 산모와 함께 수고하신 박형제가 4일 아침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 다이알을 돌렸으니. 여기 잠간 그 대화 내용을 소개해 본다.

"여보세요, 선교본부입니다."

"아! 한장노? 난네, 나야 박 ..."

"네, 재암 형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벽같이 ———."

"저 ——— 별일 없었지? 저 — 나 말야 아니 저 우리집 사람이 어제밤에 순산을 했어"

"아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모두 건강하십니까?"

"응, 건강해. 저 선교부장님께 전해드려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기까지의 대화는 대개 순조로웠으나 이 질문에 접한 박형제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왓차 필경 딸을 난게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래도 짙겉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확기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다음과 같다.

"저 - 상호부조회 회원야 -"

마음갈아서는 마음껏 웃으며 장난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의 박형제의 음성이 어찌나 심각했던지 얘기는 잘 자란다. 상호부조회 회원이라고 우물렀던 박형제는 이제는 미쓰 코리아 감이라고 큰 소리 칠만큼 사정이 달라졌다. 박형제를 닮았으면 절대로 미인일 수 없다는 지방부장님의 편견을 제쳐놓고 "어쨌든 미인야"를 언발하신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를 성도의 벼슬 빌어 성도들과 함께 드립니다.

* * * *

"나야 적절히 알아서 조정하거든!"

1966년 2월 9일

"나 아들 낳았어"

첫 마디가 우선 자랑스러웠다. 아니 그 보다는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음성이었다. 아들이어서 좋겠다는 질문에 대뜸 차형제는 깊은 학실에 근거를 둔, 그래서 생물학 문외한들은 잘 이해조차 하지 못할 얘기를 전제한 후

"나야 적절히 알아서 조정하거든!"

사실 차형제의 얘기가 얼마만큼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신임 장로 정원회 회장의 자리를 맡으신 그에게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얘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확실히 자랑스러우며 또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두애기와 그 가정과 이웃에 풍성히 내리시기를 빕다.

各支部 消息

삼청지부 소식

1. 삼청지부 지부장 새로 임명되다.

1월 23일 삼청지부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역사가 만들어 졌다. 지금까지 성실과 정직으로서 삼청지부를 이끌어 온 천낙서 형제는 교회로부터 더 큰 부름에 응하기 위하여 지부장의 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지부장으로서는 웅변가이며 선교사였던 한인삼형제가 임명되었다. 적은 회원수가 참석하지 마는 그 성도 개개인의 뛰어난 신앙과 능력과 또한 성도 전체의 단결을 자랑하는 삼청지부에 큰 영광과 빛이 있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2. 삼청지부 최초의 선교사 천낙서 장로

지난 1월 30일 저녁 6시 삼청지부에서는 뜻깊은 성찬식이 마련 되었다. 이 자리에는 선교부장님 내외분과 이호남 지방부장님 및 서울지역의 많은 선교사들이 참석했고 천형제의 가족도 참석한 가운데 신임 한인삼 지부장님의 사회로서 삼청지부가 최초로 내 보내는 선교사의 환송 모임이 있었다. 선교부장님 내외 및 지방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떠나는 천장로를 격려했으며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앞으로 많은 선교사가 삼청지부를 통해 나오기를 바란다.

3. 도서정리 완성되다.

그동안 여러 형제 자매들이 모여 정리를 해온 삼청지부의 도서는 이제 그 면목을 갖추고 회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현재 많은 회원들이 책을 빌려보고 있으며 325권의 북음서적을 주토향 책들이 비치되어 있고 그 밖에 "성도의 벗", "인스트럭터", "임부트브먼트 이터" 등의 교회 잡지가 수십권 비치되어 있다. 북음을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는 다른 지부 형제 자매들의 도서 대출도 환영한다고.

* * * *

집 많은 마음이며,
왜 내일을 위하여 두려워 하느냐?
왜 앞 일에 대해서 그렇게도 염려하느냐?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말은바 일을 다하면 될 뿐
오늘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바토 오늘이다.
오늘의 할 일만 기쁨으로 다 하라
과거는 이미 영원속에 사라진 것
미래는 아직 네 것이 되지 못한 것
오늘을 참으라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기쁨으로 다하라
신이 주신 선물이란 바토 이 한시간이다.
그의 뜻을 지금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이 한 시간으로 이 땅이
그의 천국과 같이 될 수 있으려니
오늘을 잘 살아가라 ———— 문제는 오늘이다.

—— 리디아 애브리 쿨리 워드

1966년 1월 칩페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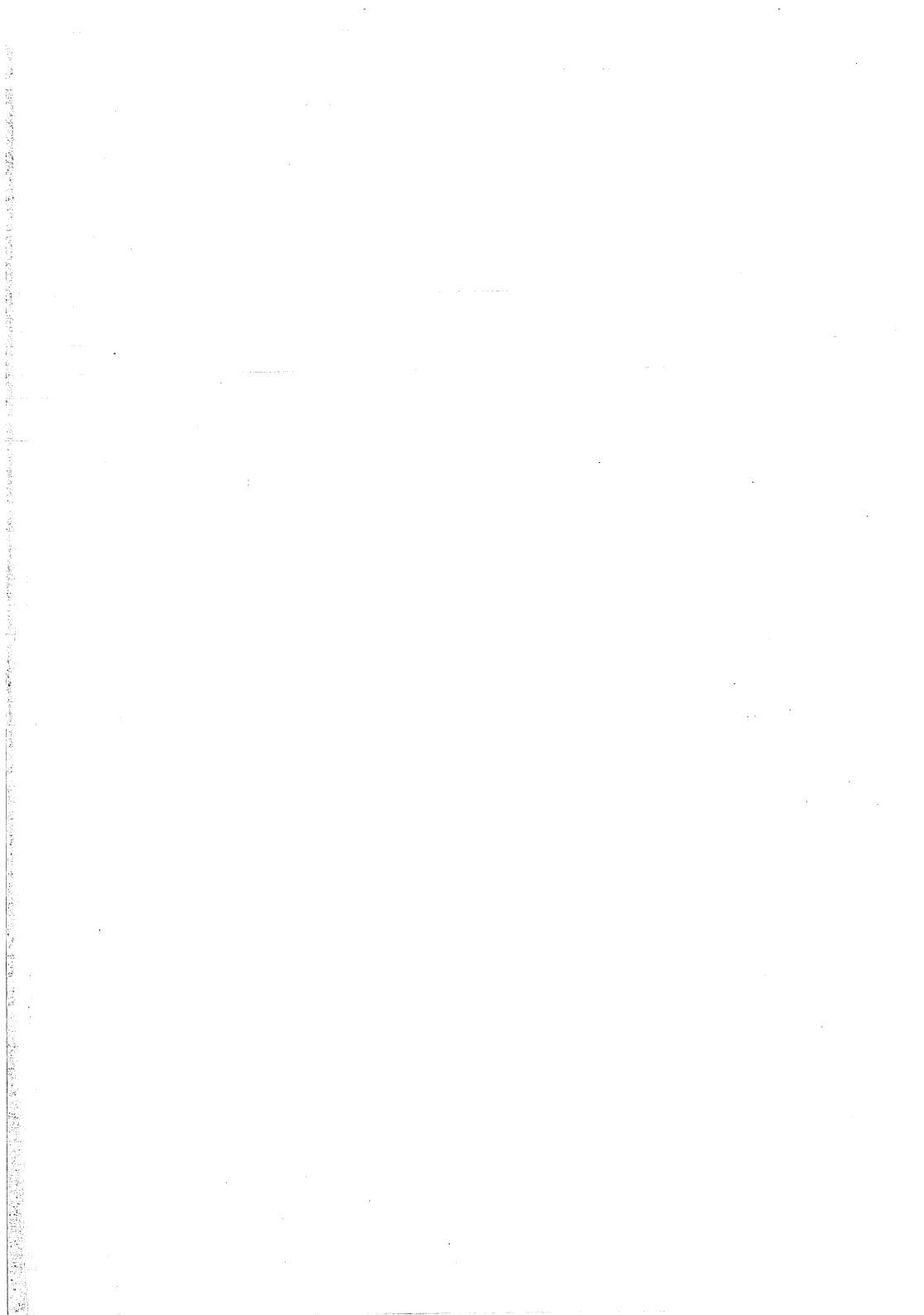
이름	지부	성별
최병천	대구 지부	남
송영희	부산 동구	여
홍경자	청운 지부	여
감점순	청운 지부	여
서석재	대구 지부	남
한찬희	대구 지부	남
김덕웅	서부 지부	남
박명숙	서부 지부	여
김부창	서부 지부	남
이영란	서부 지부	여
강현숙	동부 지부	여
정동운	동부 지부	남
이강우	동부 지부	남
장숙녀	부산 지부	여
심재경	서부 지부	여
최순남	청운 지부	여
김점옥	부산 동구	여
김승희	삼척 지부	여
성재준	삼척 지부	남

"편집 후기"

창밖에는 보슬 보슬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초목들의 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파릇한 입사귀와 아름다운 꽃을 피
도록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은 진정 이 감산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도의 벗이 몇 사람의 어용지가 아닐찌데 한정된 성도들만
성도의 벗을 통해서 오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무쪼록 성
도 여러분들의 과범위한 투고를 고대 합니다. 성도의 벗 편
집실에서는 일년을 통하여 투고하신 작품중 성의 있는 작품을
택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구상 중입니다.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敎本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番地	⑦③ 3995
淸雲支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番地	⑦③ 3995
三清支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③ 3596
東部支部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 134의19	⑨② 1005
西部支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 2街 58의1	⑦③ 1208
大邱中央支部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② 6659
釜山支部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② 1371
東區支部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10	

성도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